



광주에 CCTV 1727대 범죄 예방효과는 '글쎄'

7일 밤 9시 광주시 북구 광주역 인근 A모텔 골목길, 캄캄한 골목길에 모자를 쓴 20대 2명이 들어섰다. 맞은편에서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걸어왔다. 20대들은 여고생을 힐끗 쳐다봤다.

같은 시간 광주경찰 B파출소. 한 경찰관이 버튼을 눌러 이 골목길 사거리 전봇대에 설치된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조정하자 모니터에 이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목구비까지 자세히 보였다. 역전지구대에는 20인치 모니터 3대가 설치돼 있다. 모니터들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관할지역 곳곳을 감시한다.

◇CC-TV 설치대수=최근 CC-TV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이 경쟁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 306대·주정차 위반용 83대·신호 및 과속위반용 125대(이동식 14대 제외)·학교 안전사고 예방용 1213대 등 모두 1727대다. 이는 개인적 용도로 설치한 CC-TV는 제외된 수치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24대의 방범용과 132대의 안전사고 예방용 CC-TV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CC-TV는 상자형·돔형으로 나뉜다. 대당 가격은 100만~350만원선. 관측 가능한 가시거리는 30m~40m다. 해상도는 40만 화소.

◇범죄 예방효과와 '제자리'=광주는 CC-TV가 해마다 30대 이상씩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범죄발생건수는 2만4329건으로 2008년(2만3701건)보다 2.6%(628건) 늘었다. CC-TV는 늘었지만,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CC-TV가 범죄예방으로 직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CC-TV의 95% 가량은 고정식인데, 모니터가 설치된 각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원격조정한다. 줌 기능·360도 회전도 가능하지만, 누군가 24시간 감시하면서 조정을 해야 제 기능의 효력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단순 범죄나 우발적인 범행의 예방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계획적인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범인이 CC-TV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CC-TV가 만능은 아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찰의 순찰시스템 개선, 지역주민들의 치안관리 노력, 범죄예방 대책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사례=영국 런던 시내를 오가는 버스에 평균적으로 7개의 감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내부 감시용 3대, 전면과 후면 주시용 2대 그리고 측면 감시용 2대 등이다. 런던의 명물 붉은 2층 버스의 경우 총 9대까지 장착돼 있다.

영국은 'CC-TV왕국'이다. 2008년 8월 기준으로 428만5000여대가 설치돼 있다. 인구 14명당 한 대 꼴이다. 또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CC-TV 노출시간은 300분에 달한다. 런던 시내에만 카메라가 50만대 이상 설치돼 있을 정도.

영국은 이 같은 CC-TV 덕에 범죄율이 70% 정도 줄었다. 프랑스도 CC-TV를 100여만대에 달하는 30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200만대가 설치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지자체 설치 확대 불구
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어
사각지대 많아 계획 범죄 '사각'

■ 국내 CC-TV 발달단계

구분	1990년대초	2002년대 이후	2009년 개발진행
화질수준	27만화소이하	30만~35만 화소	200만 화소이상
특징	거리 교통상황 분석수준	인식 변호판 확인기능	줌기능 강화 세밀한 인식기능

신규개발제품 : 말하는 CCTV 아간전용 CCTV 등



광주시 북구 우산동 신흥교회 인근 골목길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이 CC-TV는 360도 회전은 물론 줌 기능도 갖추고 있다.



CC-TV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말하는 CC-TV는 물론 아간 환경에서 투시력을 높인 제품까지 나오고 있다.

CCTV '범죄 사각' 커버

'음성 안전지킴이'

지난 8월 22일 광주에서는 대남 초등학교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 동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박모(28)씨가 A(12·5년)양을 분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것이다.

사건 당시 학교 본관 주변에는 3대의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위치가 고정돼 있어 범행 현장을 비추지 못했다. 특히 A양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으나, 박씨의 완력을 당해내지는 못했다.

최근 '조두순 사건' 등 성범죄와 아동대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CC-TV를 설치하는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CC-TV가 고정식이어서 '사각지대'가 많고, 선명도 및 가시거리 등에서 여러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CC-TV 등 보안 시설의 '진화 바람'을 타고 음성인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 음성만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 '범죄사각'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

목소리만으로 위급 상황 알려줘
음성인식 첨단 보안 시스템 개발
정간아이앤씨, 이달부터 서비스



7일 (주)정간아이앤씨(대표 여승규)에 따르면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음성 안전지킴이'를 특허 개발해 이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안전지킴이' 서비스는 소형 마이크와 연결된 음성인식장치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알리는 특정 단어가 인식되면 경찰서나 경비실, 가족 등에게 응급구조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살려주세요'나 '엄마', '안가요' 등 위급상황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미리 입력해서 보안장치가 이를 감지하게 하는 구조다. 또 학교나 아파트 등 설치 장소의 특성에 따라 위급상황을 감지하는 단어를 추가로 입력할 수도 있다.

특히 '안전지킴이'를 기존에 설치된 CC-TV와 연동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안전지킴이'에 위급상황이 감지되면 CC-TV가 자동으로 녹화되거나,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안전지킴이'는 음성을 통해 위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두운 곳을 식별하지 못하는 기존 CC-TV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 장소도 학교와 아파트 등은 물론, 지하 주차장, 금융기관, 편의점, 공원, 기타 범죄예방책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주)정간아이앤씨 관계자는 "CC-TV는 범죄예방 효과보다 범인 검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지킴이'는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려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CC-TV 등 다른 보안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여서 수준높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미적만네

그동안 함양웃닭을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모시고자 아래의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며, 2000년 8월 4일 개업이래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정성으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토종 참웃닭 | 웃 청동오리 | 웃 삼계탕 | 촌닭 백숙 | 삼계탕

자연산 **함양 참웃닭** 예약 전화 062-515-5757 북구 유동 9-3(삼성병원 뒷편)

SCREEN GOLF 두암골프존

SEASON EVENT

2010년 11월30일까지 진행합니다.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 season event는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에만 적용합니다.
-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 2010년 12월 01일부터는 정상요금으로 포인트 적립해드립니다.

편안하고쾌적한 최고시설 5개홀 |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홀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윈스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두암골프존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원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234-9999